



대림 제3주일(12월 15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18)



세례자 요한의 설교

갈색, 황토색, 회색, 노란색이 감도는 흰색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색감을 낮추어 마치 흑백사진처럼 보이지만,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자 요한은 빛을 듬뿍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다. 복음사가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다양한 인종인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터키인과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등장시켜 요한의 설교에 대한 보편성을 보여주려 했다. 또한 이 작품의 특징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램브란트는 복잡한 세상의 풍경처럼 다양하게 묘사함으로써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힘겨웠던 삶을 떠올리게 하지만, 요한의 발 아래 놓인 세상의 죄악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씻어줄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작가 램브란트 | 1634년경, 목판을 댄 캔버스에 유채, 62.7x81cm, 국립미술관, 독일.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뭇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공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본 적이 있습니까?
(루카 3,10 참조)

지난 시간 나의 삶 안에서 내어줌을 통해 기쁨을 누렸던 일들이 있습니까?
(루카 3,11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주일인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 안에서 내어줌의 의미, 자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서 빠져들지 않게 해 준다(토빗 4,16)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없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세상에서 극도로 가난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고통에 감사하라느니, 현실에 만족하라느니 등의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회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절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집회 4,5)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더 큰 불행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가난해서 하느님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선을 베풀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니다. 이 대림 시기가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마음 안에 참된 기쁨이 자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3장 11절]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준비하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맞이 ▶ 교황님 12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를 읽은 후, 다음 모임 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나눠 보기]

내 삶 속에서

[① 2025년 정기 희년 공식 홈페이지 살펴보기 ▶  ② 로마서 5장 1~5절을 읽고 내 삶의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는지 성찰해보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